

윤석열 탄핵... 국민이 이겼다



시민과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유족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5·18민주화운동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5시에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광주시민 3만여명이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 '가결' 尹, 대통령 직무정지...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돌입

'분노한 국민의 힘'이 '12·3 계엄사태'를 이겨내고,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냈다.

영하의 날씨에도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국회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 모여든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외쳤고, 시민의 자발적인 연대와 실천은 계엄을 막아내며 이어 '내란 책임자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됐다. 국회를 둘러싼 수많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는 이날 국회 본회장 인근에서도 울려 퍼졌고, 가결 소식이 알려 지자 얼싸안고 춤을 추기도 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번째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극심한 정세 혼란은 막았다. 환율 급등과 주식 급변 등 계엄 파장으로 막혔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통령 공석에 따른 정치 불안과 진영 갈등 등 여전한 국정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국회 300명 투표 204명 찬성 탄핵안 가결=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우원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탄핵안 표결 전 "오늘 의원님들께서 받아 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이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부친상 비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및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오후 3시 40~50분까지 토론을 했고, 그 이후에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았지만 당론 변경은 없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참여 및 탄핵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권 원내대표를 포함해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왔지만 반대 당론에는



우원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화가 없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 '12·3 계엄사태'는 최장 180일간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으며, 2017년 3월 10일 현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현재의 기각 결정까지 2개월가량 걸렸다.

◇대통령 담화·추가 폭로에 국민 분노=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찬성 투표로 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최근 대통령의 인행과 계엄 관련 추가 증언 탓에 국민의 분노가 더욱 치솟았던 점이 주요 배경으로 손꼽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계엄사태'의 '정당성'과 '내란이 아닌 점'을 강조했고,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의 원인으로 야권의 무리한 탄핵과 특검법 발의,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고, 중국과 북한의 첩보 활동에 따른 위급 상황을 지적하며 '반공(反共)' 이데올로기까지 늘어놓았다.

반면, "국회 문을 열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계엄군 간부들의 국회 증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국회 계엄군 투입은 단순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일부 반대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 등 일부 보수 유튜브버들의 편향된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담화 내용에도 강조해 계엄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인 출동의 이유가 부정선거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발표했다.

극우 유튜브버의 단순 주장을 사실로 믿는 듯한 대통령의 담화는 '괴변'에 가까웠다. 지속적으로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또 지난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통령 권한 행사를 이어간 점도 '질서있는 퇴진' 약속과 유배되면서 당내 논란을 키웠다. '진 윤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당내 갈등은 극에 달했다.

또 대통령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 분노도 들끓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싸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청사형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스스로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크게 반발했고, 대통령 체포 지시 명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고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법원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위대한 국민의 승리" ... 전국이 '들썩 들썩'

광주 금남로에 3만여명 몰려
서울·대구 등 전국 탄핵 인파

'우리가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4일 광주 금남로와 대구 동성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자축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전국 탄핵집회 현장에서 대형 모니터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우원석 국회의장이 탄핵가결을 선포하자 마침내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다"며 감격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는 주최측 추산 3만여명의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탄핵가결을 염원했다.

이들은 탄핵가결이 선포되자 너나할 것 없이 감격했고 흥이 고조된 시민은 덩실덩실 춤을 추는 등 흡사 축제 현장을 연상케 했다.

집회 사회자가 '우리가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 구호를 외치자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은 잇따라 만세를 부르며 함성을 불어냈다.

시민 오성중(62·송정1동 주민)씨는 "탄핵안이 가결된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의 분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 집회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놓아 부르며 탄핵을 염원했다.

대구 시민들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민주주의 승리'라며 감격해 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대구 탄핵집회에서 시

민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탄핵을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직접 만들어진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국회 앞 집회에서 10~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의 참가자들은 국회 앞 도로를 뺨뺨하게 메우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즉각 탄핵·즉각 체포" 등이 적힌 손팻말과 응원봉을 흔들거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의 대중가요를 따라 부르며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탄핵안 가결을 반겼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구=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서울=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1980년 6월 2일자 광주일보(옛 전남매일). 김준태 시인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왼쪽)가 계엄사 검열단에 의해 제목과 기사가 무참하게 잘려나간 채 발행됐다(오른쪽). <광주일보 자료사진>

44년 전 '빨간펜 검열' 삭제된 광주일보... 하마터면 또 이런 세상 살 뻔했다

계엄군 언론 검열로 기사 삭제
'12·3 내란' 슬기롭게 극복해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진압으로 신문이 휴간한 뒤 재발행된 1980년 6월 2일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에 실린 김준태 시인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는 계엄군

의 검열로 109행 중 33행만 지면에 실렸습니다. 광주 희생자의 명복을 받고, 광주의 아픔을 담은 시의 일부가 계엄군의 손에 삭제된 것입니다.

시민과 언론이 역사 앞에 눈을 감으면, 언제든 계엄군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억압하고 진실을 감출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 계엄'은 또 한번 국민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사실상 '친위 쿠데타', '내란'이라는 점입니다.

다.

이에 광주일보는 44년 전 억압과 분노를 잊지 말고 기억해 '12·3 계엄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의 전문 제작지면(왼쪽)과 계엄군의 '빨간펜 검열'로 누더기 상태로 게재된 보도지면을 다시 한 번 역사 앞에 남깁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